

# 대학신입생의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이경화(李慶和)\*

유경훈(柳京薰)\*\*

김은경(金垠慶)\*\*\*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대학신입생들의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7차년도 대학생집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국내의 4년제 대학생인 2,369(34.2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구성은 여학생 1,180명(49.8%)과 남학생 1,189명(50.2%)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관여는 대학생들의 소속감과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학업성취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관여가 소속감과 만족도, 대학적응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연구모형이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대학 신입생,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

## I. 서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이 되는 것은 청년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숭실대학교 교직과 교수

(Erikson, 1968). Arnett(2000)는 18세에서 25세의 청년을 떠오르는 성인(emerging adults)라고 표현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이 시기의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력, 정체성 발달 등의 바람직한 교육적 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Baxter Magolda, 2001; Chickering & Reisser, 1993; Tinto, 1993).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관여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 문화권에 비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 숙제를 챙기고, 학원 일정을 결정하는 등 자녀 학습에 부모관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김아영 외, 2008). 부모관여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제반 여건과 활동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 및 자녀의 학습활동 도와주기, 부모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도움,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를 통한 도움 등을 포함한다(문은식, 김충희, 2003).

대학생에 대한 부모관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진학과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 고등교육정책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72%의 부모가 자녀의 대학 입학지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57%는 입학사정관과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고, 단지 6%의 부모만이 대학 입학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Stringer, Cunningham, O'Brien, & Merisotos, 1998). 또한, 신입생의 13%, 4학년 학생의 8%는 부모가 대학에서의 문제해결에 자주 개입한다고 하였고, 신입생의 25%, 4학년의 21% 학생들이 부모가 때때로 간섭한다고 하였다(NSSE, 2007).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결정과 진로결정 과정에 관여하며(Lefkowitz, 2005), 매일 자녀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접촉하고(Trice, 2002), 심지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대신 교수나 교직원을 찾아가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Keppler, Mullendore, & Carey, 2005). 또한 기숙사 룸메이트와의 사소한 다툼이나 수강신청, 성적 향상, 건강문제에도 부모는 관여한다(Flanagan, 2006).

이제 부모는 자녀의 입학에서부터 학업적, 사회적 대학생활적응에 이르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미루어볼 때, 가족중심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녀의 입학과 대학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모관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관여가 대학생에게도 계속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생에게 부모관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지원,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시의 부모의 영향 등의 대학생에 대한 부모관여가 대학 신입생들의 만족도, 소속감, 적응도와 같은 대학생활적응변인과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

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에 잘 적응하고 높은 만족도와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대학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과 학업성취도에 부모관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에서 바람직한 학습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 관여와 대학생의 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

현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밀레니엄 세대에 속한다. 밀레니엄 세대는 1982년 이후부터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로 기존 세대에 비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 속에 성장했고, 부모가 주도하는 시간 관리와 생활패턴에 익숙하고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며 자랐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위협을 감수해야 하므로 밀레니엄 세대는 혼자서 일하는 것에 자신감이 부족하며 부모의 가이드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we & Strauss, 1993, 2003; Murray, 1997).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인기라는 새로운 인생 단계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에게 부모관여는 충격과 급격한 변화를 완충시키고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부모관여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서 학업적인 부분에 까지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관여는 대학생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Taub, 2008).

부모의 관심과 교육적인 관여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 부모의 정서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은영, 2011;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부모관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적응하는 시기에 특히 중요한 충격완화(buffer)의 역할을 해서 대학적응을 돕는다(Henton, Lamke, Murphy, & Haynes, 1980; Hoffman & Weiss, 1987; Holahan & Moos, 1981; Rice, Cole, & Lapsley, 1990). 또한,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두환, 김지혜, 2011), 대학신입생들의 경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과 관계성을 매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김은주, 2007).

### 2. 부모 관여,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

대학생의 학업성취는 대학교육을 통하여 배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 등의 결과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이영희 외, 2009). 부모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모관여가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3; 임은미, 1998; Fan & Chen, 2001; Shumow & Miller, 2001)이 이루어졌고, 부모관여는 대학에서의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Cutrona et al., 1994). 그러나 부모관여가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Barnard, 2004)도 있고,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나 가족과 독립된 성인으로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quilino, 2006; Lefkowitz, 2005; Tinto, 1993).

대학생활에서의 소속감, 학업적 융합은 대학적응 및 학업성취의 주요 영향요인이 된다(Saenz, et al, 1999). 학교 소속감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신중호 외, 2011; Osterman, 2000). 소속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며(Furrer & Skinner, 2003),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Rice & Mirzadeth, 2000; Thompson & Gaudreau, 2008). 대학에서 소속감은 학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이수진, 2006), 학업적 적응은 다시 대학생활적응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Robbins, 2004). 또한 학교생활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도록 하며(김두환, 김지혜, 2011), 내재적인 학습동기를 촉진시켜 긍정적인 교육결과를 가져온다(Pekrun, 1992).

최근 학업성취와 관련한 연구들은 부모나 개인적 특성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어떤 매개효과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신중호, 신태섭, 2006; 이정규, 2005). 기존의 연구들은 자아효능감, 자기조절학습, 성취동기 등의 개인적인 특성이 매개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학생활에서의 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은 부모관여의 영향을 받으며(Rice, Cole, & Lapsley, 1990; 김은주, 2007).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Saenz, et al, 1999) 변인들이므로 부모관여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는 2005년 당시 3단계 층화군집추출법(three 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2005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학생

들이 만 30세가 되는 2023년까지 추적조사를 하도록 설계된 종단연구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까지 조사한 1~7차년도 자료 중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 관련 부모영향, 대학적응, 만족도 및 소속감, 학업성취 등이 포함되어 있는 7차년도의 대학생 집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응답자 6,908명 가운데 국내의 4년제 대학생인 2,369(34.2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구성은 여학생 1,180명(49.8%)과 남학생 1,189명(50.2%)으로 이루어져있다.

## 2. 연구변수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잠재변인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 관련 부모영향, 대학적응, 소속감, 만족도를 선정하였으며 학업성취는 각 학교에서의 성적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표 1> 주요 연구변인의 구성 및 신뢰도

잠재변인		문항번호 및 내용(7차년도)	신뢰도
부 모 관 여	정서적 지원	공통 30(4문항)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1) 지출을 아끼지 않으심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2) 격려해주심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3) 기분을 맞춰 주심 공30. 부모님의 지원 정도 - 4) 물심양면으로 지원	.812
	학업적 지원	공통 29(3문항), 29-1(4문항) 공29. 부모님의 관여 정도 - 1) 거주 형태 선택 공29. 부모님의 관여 정도 - 2) 사생활 공29. 부모님의 관여 정도 - 3) 진로 준비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1) 수강과목 선택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2) 아르바이트 선택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3) 대학학과 이외의 활동 선택 공29-1. 부모님의 관여 정도 - 4) 학점 관리	.786
	대학 지원 관련 부모 영향	대학생 6(4문항)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1) 대학 진학 여부 결정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2) 지원 대학 선택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3) 입학 대학 선택 대6. 부모(보호자) 영향 - 4) 전공(계열) 또는 학부 선택	.848

대학생활적 10	만족도	대학생 20(9문항) 대20. 만족도 - 1) 전반적인 대학생활 대20. 만족도 - 2) 강의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대20. 만족도 - 3) 교수 및 강사진 대20. 만족도 - 4)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 대20. 만족도 - 5) 수업방식 대20. 만족도 - 6) 전반적인 교육환경 대20. 만족도 - 7) 교수와의 교류 대20. 만족도 - 8) 교우관계 대20. 만족도 - 9) 선후배관계	.840
	소속감	대학생 21(16문항) 대21. 소속감 - 1) 학과의 구성원 대21. 소속감 - 2) 대학의 구성원 대21. 소속감 - 3) 학과에 소속감 대21. 소속감 - 4) 대학에 소속감 대21. 소속감 - 5) 학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 대21. 소속감 - 6) 대학의 일원으로서 자부심 대21. 소속감 - 7) 학과를 타인에게 자랑 대21. 소속감 - 8) 대학을 타인에게 자랑 대21. 소속감 - 9) 학과에서 소외(역) 대21. 소속감 - 10) 동료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역) 대21. 소속감 - 11)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역) 대21. 소속감 - 12) 대학 내의 환경 잘 맞음 대21. 소속감 - 13) 원하는 만큼 친구 사귀 대21. 소속감 - 14) 대학 결정에 대해 만족 대21. 소속감 - 15) 대학생활을 잘 한다 대21. 소속감 - 16) 휴학 후 공부 마침	.892
	대학적응	대학생 22(9문항) 대22. 대학적응 - 1) 재학의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 인지 대22. 대학적응 - 2) 학업에서 교수님의 요구와 기대 이해 대22. 대학적응 - 3)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짐(역)(삭제) 대22. 대학적응 - 4) 해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함(역) 대22. 대학적응 - 5) 학업과 여러 활동을 병행이 쉬움 대22. 대학적응 - 6)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대22. 대학적응 - 7) 대학교육 가치에 회의(역) 대22. 대학적응 - 8) 대학에서 배우는 것=흥미, 유익 대22. 대학적응 - 9) 공부, 취미활동 함께 하는 친구 있음	.703
학업성취	대학생 16(1문항) 표준화: 대16-학업성취도_2011년 1학기 성적① 4.0만점인 경우 표준화: 대16-학업성취도_2011년 1학기 성적② 4.3만점인 경우 표준화: 대16-학업성취도_2011년 1학기 성적③ 4.5만점인 경우	-	

가. 부모관여

부모관여에서 잠재변인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4문항), 부모의 학업적 지원(7문항), 대학지원관  
 련 부모영향(4문항)이 포함되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 나.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은 만족도(9문항), 소속감(16문항), 대학적응(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 다. 학업성취

학업성취는 대학생의 학업성적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학교별로 3.7, 4.0, 4.5 등의 점수 기준이 다르므로 표준점수(Z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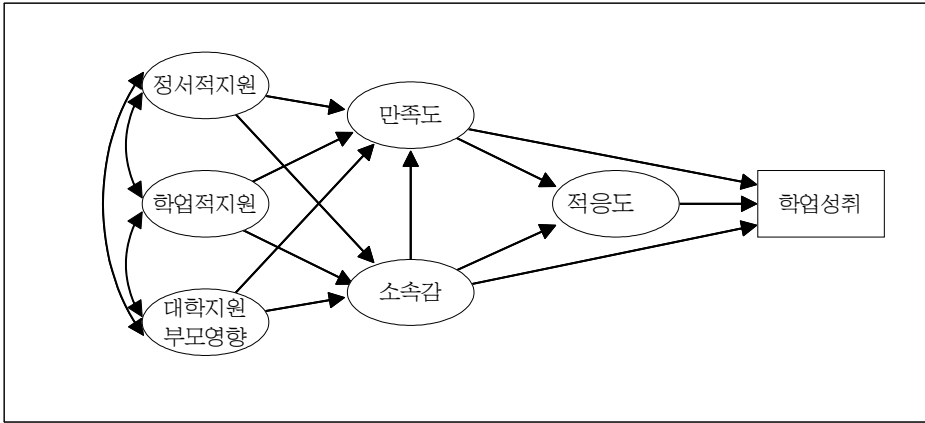
### 3. 결과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여(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와 대학생활적응(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 학업성취 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합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 하였다. 구조방정식 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IML)을 사용하여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정도를 살펴보고자 각 측정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구하였다(표2 참조).

### 4. 연구모형 및 가설

부모관여(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와 대학생활적응(소속감, 만족도, 대학적응), 학업성취 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고자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시의 부모영향은 대학에서의 만족도와 소속감, 적응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다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잠재변인으로서 학습자가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행동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 정도 및 대학 및 전공 지원과 관련한 부모의 영향을 포함하였고,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소속감 및 적응도를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업성취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 점수로 구성되었으며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 IV. 결과 및 해석

##### 1.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변인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

대학생들의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부모환경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3.84), 대학지원 관련 부모영향(3.22), 부모의 학업적 지원(2.9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의 평균은 소속감(3.48), 만족도(3.29), 대학적응(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규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각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 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또한 절대 값 '10'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규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정규성 검정

(N=2369)

잠재변인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Statistic	Std. Error	Statistic	Std. Error	
부모 관여	정서적지원	1	5	3.84	.67	-.41	.05	.67	.10
	학업적지원	1	5	2.94	.68	-.10	.05	-.08	.10
	대학지원 부모영향	1	5	3.22	.85	-.30	.05	.34	.10
대학 생활 적응	만족도	1	5	3.29	.58	-.16	.05	.61	.10
	소속감	1.31	5	3.48	.58	-.19	.05	.09	.10
	대학적응	1.25	5	3.04	.49	.05	.05	.52	.10
학업성취		-6.14	1.92	.00	1.00	-1.63	.05	6.58	.10

대학생들의 부모관여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 등의 하위 요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제 변인들의 상관은  $r=.21\sim.59$ 의 상관을 이루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상관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부모관여가 신입생의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관여가 학업성취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관여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으나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주며, 대학생활의 적응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부모관여가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서적 지원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 부모영향	만족도	소속감	대학적응	학업성취
정서적지원	1						
학업적지원	.138***	1					
대학지원 부모영향	.177***	.369***	1				
만족도	.206***	.078***	.090***	1			
소속감	.224***	.083***	.090***	.659***	1		
대학적응	.170***	.069**	.091***	.590***	.551***	1	
학업성취	.020	-.022	.020	.092***	.065**	.247***	1

\*\*  $p < .01$ , \*\*\*  $p < .001$

## 2.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대학생들의 관여와 대학생활 적응변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chi^2$ 은 기각되었으나 ( $p < .001$ ),  $\chi^2$ 은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유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적합지수들을 살펴보았다. RMSEA는 오차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그 값이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으며(Browne & Cudeck, 1993),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한다(MacCallum et al., 2001).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연구모형이 .06으로 매우 만족할만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인 N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는데, 제시된 모형의 수치는 연구모형이 .915로 기대치인 .9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CFI는 .90보다 높을수록 바람직하는데, 연구모형에서 CFI는 .923으로 나타나 만족스러웠다. TLI의 경우는 .898로 나타나 .90보다 약간 낮았으나 0.8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Kline, 1998). 따라서 연구모형의 모든 수치들이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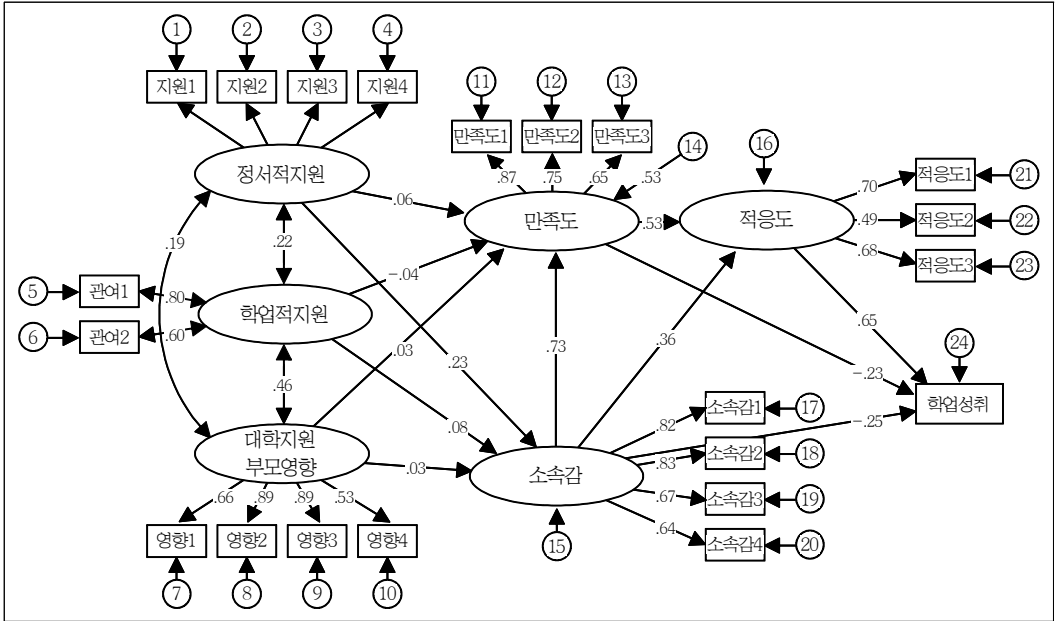
적합도 지수	$\chi^2$	df	p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RMSEA	TLI	CFI	NFI
연구모형	1701.926	175	.000	.061	.898	.923	.9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들의 모수를 추정해보고, 부모관여 변인과 대학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설명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 및 <표 5>와 같다.

모수치 추정결과인 <표 5>와 표준화회귀계수로 구성된 최종경로 모형인 [그림 2]를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소속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였으나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지원은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은 만족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소속감은 만족도에 정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족도와 소속감은 대학생활 적응도를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응도는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나 만족도와 소속감은 학업성취를 부적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만족도와 소속감이 학업성취를 부적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는 7차 종단연구의 설문이 실시된 시기가 대학교 1학년 2학기였으므로, 학과나 동아리별 행사가 많은 1학년 대학생활적응

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활동을 많이 하여 학과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등의 소속감이나 선후배관계 등을 잘 해나가는 것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간의 경로

<표 5> 대학생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구조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소속감 ← 정서적 지원	.23***	.25	.03	8.83
소속감 ← 학업적 지원	.08*	.10	.04	2.52
소속감 ← 대학지원 부모영향	.03	.03	.03	1.17
만족도 ← 정서적 지원	.06*	.06	.02	2.94
만족도 ← 학업적 지원	-.04	-.05	.03	-1.63
만족도 ← 대학지원 부모영향	.03	.02	.02	1.26
만족도 ← 소속감	.73***	.69	.02	30.84
대학적응 ← 만족도	.53***	.45	.03	13.63
대학적응 ← 소속감	.36***	.30	.03	9.77
학업성취 ← 대학적응	.65***	1.29	.15	8.80
학업성취 ← 만족도	-.23***	-.38	.10	-3.90
학업성취 ← 소속감	-.25***	-.41	.08	-5.22

지원1			.69***	1.00	-	-
지원2	←	정서적	.74***	1.00	.03	30.05
지원3		지원	.67***	1.06	.04	27.68
지원4			.80***	1.20	.04	31.35
관여2	←	학업적 지원	.60***	1.00	-	-
관여1			.80***	1.21	.08	14.76
영향1	←	대학지원	.63***	1.00	-	-
영향1		부모영향	.89***	1.27	.04	33.61
영향1			.89***	1.26	.04	33.61
영향1			.66***	.97	.04	27.33
만족도1	←	만족도	.87***	1.00	-	-
만족도2			.75***	.85	.02	38.98
만족도3			.65***	.81	.03	32.87
소속감1	←	소속감	.82***	1.00	-	-
소속감2			.83***	1.12	.03	42.75
소속감3			.68***	.71	.02	33.79
소속감4			.64***	.61	.02	31.97
적응도1	←	대학적응	.70***	1.00	-	-
적응도2			.49***	.60	.03	20.52
적응도3			.68***	.83	.03	27.35

\* p<.05 \*\*\* p<.001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각 독립변인들과 학업성취 간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학업적 지원,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만족도, 소속감, 대학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성취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초 중 등 학생들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같은 관여가 학업성취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모관여가 관련된다는 점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부모관여가 대학생활적응에서의 소속감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에서의 적응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대학생활의 소속감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전반적인 신입생의 대학생활과 교수, 선후배, 동료와의 관계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입학 전에 이루어진 대학의 입학이나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학지원관련 부모영향

은 대학에서의 소속감과 만족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에서 대학입학 이전에 지원할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는 대학지원과 관련한 부모의 영향은 대학 입학 이후 대학에서의 만족도나 소속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대학 입학 이후의 대학 생활에 대한 경제적, 학업적, 정서적 지원이 만족도와 소속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의 학업적 지원은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만족도와 소속감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등의 대학생활의 적응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도는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관여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Cutrona et al., 1994)와 같은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여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고, 대학생활 적응도를 통해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대학생활적응 만족도와 소속감을 통해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 만족도와 소속감이 학업성취를 부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는 대학생의 만족도와 소속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Saenz, et al., 1999)와 다른 결과이다. 7차 중단연구의 설문이 실시된 시기는 대학교 1학년 2학기였다.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을 분석한 오영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입학 후 한 달 동안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교수, 선배, 동아리 등 새롭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경험을 가장 좋았던 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가 사람들과의 만남과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술 문화를 응답하고 있다. Ichiyama와 Kruse(1998)은 사립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1/3이 빈번한 폭음을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었다. 음주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를 (강승호, 2010) 고려할 때, 선배들과 어울리고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지만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신입생에서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이 높은 것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관여가 진로 선택, 가치관 정립 등의 대학에서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관련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며,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부모관여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청년기의 독립성과 자율성 획득이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획득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Taub, 2008)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부모관여는 자녀가 동료들과 관계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성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발달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밝힌 본 연구는 부모가 융통성 있게 규칙을 적용하고,

관여를 하는 정도는 신입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대학생활의 적응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간섭이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의 관계를 구조모형으로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관여와 음주정도와 같이 학습성과와 관련이 있는 대학생활적응에서의 세부적인 다른 활동들이 학습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적인 연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처음으로 수집되었으므로 횡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종단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부모관여가 다음 년도의 대학생활적응 및 다른 관련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전체 대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8차 종단연구가 대학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여러 학년의 대학생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호 (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 45(4), 128-168.
- 김아영, 차정은, 이다솜, 임인혜, 탁하얀, 송윤아 (2008).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 35(4), 3-24.
-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서민원 (2003). 다층모형의 논리적 구조와 적용: 대학교육의 효과 측정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16(2): 43-63.
-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신종호, 신태섭 (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 요인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5(1), 5-23.
- 신종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 (2011).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 오영재 (2006).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25, 141-164.
- 이수진 (2006). 사회소속감이 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논총**, 26(2), 117-128.
- 이영희, 이영미, 김동기 (2009).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6(1), 179-196.
- 이정규 (2005). 대학생의 창의성과 직업선택도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2), 413-432.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quilino, W. S. (2006). Family relationships and support systems in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Ed.).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pp.

- 193-217). Washington, DC: APA Books.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Barnard, W. M. (2004). Parent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educational attain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6, 39-62.
- Baxter Magolda, M. B. (2001). *Making their own way: Narratives for transforming higher education to promote self-authorship*. Sterling, VA: Stylu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hickering, A. W., & Reisser, L. (1993).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utrona, C. E., Cole, V., Colangelo, N., Assouline, S. G., & Russell, D. W. (1994). Perceived parental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69-37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 1-22.
- Flanagan, W. J. (2006). The future of the small college de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 116, 67-182.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belong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representing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293-309
- Henton, J., Lamke, L., Murphy, C., & Haynes, L. (1980). Crisis reaction of college freshman as a function of family support systems.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8, 508-510.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Holahan, C. J., & Moos, R. H. (1981).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65-370.
- Howe, N., & Strauss, W. (1993). *Millennial Rising: The Next Greatest Generation*. New York: Vintage Books.
- Howe, N., & Strauss, W. (2003). *Millennial go to college*. New York: LifeCourse.
- Ichiyama, M. A. & Kruse, M. L. (1998). *The social contexts binge drinking among private university freshman*. University of San Diego.
- Keppler, K., Mullendore, R. H. & Carey, A. (2005). *Partnering with the parents of today's college*



- students*. Washington, DC: NASPA.
- Kline, R. B. (1998). *Structure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fkowitz, E. S. (2005). Things have gotten better: Developmental changes among emerging adults after the transition to universit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 (1), 40-63.
- MacCallum, R. C., Widaman, K. F., Preacher, K., & Hong, S. (2001).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The role of model err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 611-637.
- Murray, N. D. (1997). Welcome to the future: The Millennial Generation. *Journal of 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57(3), 36-40.
-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2007). *NSSE Annual report 2007*.
- Osterman, K. F. (2000). Student's need for belonging in the school communi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3), 323-367.
- Pekrun, R. (1992). The impact of emotions on learning and achievement: Towards a theory of cognitive/motivational mediators. *Applied Psychologie: An International Review*, 41, 359-376.
- Rice, K. G., Cole, D. & Lapsley, D. K. (1990). Separation 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a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10.
- Rice, K. G., & Mirzadet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38-250.
- Robbins, S. B. (2004). Do psychosocial and study skill factors predict college outcomes?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 261-288.
- Saenz, T., Marcoulides, G. A., & Young,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experi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minor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3(4), 199-208.
- Shumow, L., & Miller, J. D. (2001). Parents' at-home and at-school academic involvement with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 68-91.
- Stringer, W. L., Cunningham, A. F., O'Brien, C. T., & Merisotos, J. P. (1998). *It's all relative: The role of parents in college financing and enrollment* (USA Group Foundation New Agenda Ser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Policy.
- Taub, D. (2008). Exploring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22, 15-28.
- Thompson, A., & Gaudreau, P. (2008) From optimism to coping: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5, 269-288.

- Tinto, V. (1993). A theory of individual departure from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V. Tinto (Ed.),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pp. 84-13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ice, A. D. (2002). First semester college students' email to parents: I. Frequency and content related to parenting style. *College Student Journal*, 36, 327-334.

\* 논문접수 2013년 5월 1일 / 1차 심사 2013년 6월 10일 / 2차 심사 2013년 8월 5일 / 게재승인 2013년 9월 10일

\* 이경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평생교육학과 교수, (현) 한국영재교육학회 회장. 주요관심분야는 교수학습, 창의성, 영재교육 등임. 주저자.

\* E-mail: khlee@ssu.ac.kr

\* 유경훈: 상명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주요관심 분야는 창의성, 동기, 창의적 환경 등임. 교신저자.

\* E-mail: lewkh@ssu.ac.kr

\* 김은경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교직과 교수, 주요관심분야는 대학생 발달, 창의성 등임. 공동저자.

\* E-mail: ekim@ssu.ac.kr

## Abstract

#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Involvemen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irst Year College Students

Lee, Kyung Hwa\*

Lew, Kyoung-Hoon\*\*

Kim, Eunkyung\*\*\*

Parental involvement remains to be a prevalent phenomen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college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first yea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utilized the KEDI's longitudinal data collected on 4-year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for 2012 to show whether or not parental involvement has impacts on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college life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2,369 college students' data. It was found that parental involve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Parental involvement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It was confirmed that parental involvement indirectly explain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Parental involvement was a positive predictor of 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three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s(sense of belonging in college,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intermediated the predictive relationship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o parents and institu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involvement, college life adaptation, academic achievement

---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